

봄비에 막힌 KIA 상승세

4경기 연속 비로 취소
경기 감각 유지 과제



'호랑이 군단'이 상승세 길목에서 하늘만 올려봤다. 7일 창원NC파크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비로 취소됐다. 이와 함께

KIA는 4일 연속 그라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4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가 밤새 내린 비로 취소됐고, 주말 창원에서 예정됐던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도 비로 한 경기도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 KIA가 집중력 있는 경기를 펼쳐며 상승세를 탔던 만큼 또 어린날 연휴 기간 느긋하게 야구를 즐기려던 팬들에게는 아쉬운 비가 되고 말았다.

비로 기대했던 선발 매치도 무산돼 아쉬움은 컸다.

앞서 4·5일 양현종이 선발 출격을 준비했지만 연달아 경기가 취소되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변경됐다. KIA가 6일 손 앤더슨을 선발로 예고하면서 NC 에릭 페디와의 흥미로운 '외인 특급' 맞대결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경기도 비로 취소됐고 7일 KIA 이의리와 NC 이용준이 선발로 예고됐다.

KIA의 차세대 에이스 이의리와 테일러 와이드너의 부상 공백 속 '대체 선발'로 깜짝 활약을 하고 있는 이용준의 맞대결. 2002년생 동기들의 만남이었던 만큼 이 대결에도 야구팬들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봄비에 이 대결도 무산되면서 KIA 팬들은 야구 없는 연휴를 보내야 했다.

KIA 입장에서 답답지 않은 비가 됐다.

4일 내린 비는 단비였다. KIA는 3일 경기에서 승리를 지키기 위해 마운드 총력전을 벌였다.

신인 윤영철이 5이닝 1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한 뒤 전상현-장현식-이준영-최지민-김기훈을 투입하면서 10-2의 승리를 만들었다.

전날 경기에서는 메디나가 3회를 끝으로 물러나면서 불펜이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만큼 내심 4일 휴식이 반가웠다.



윤영철

하지만 NC와의 3연전이 모두 취소되면서 '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KIA는 4일 마지막 3연전에서 LG를 상대로 싹쓸이 3연승을 거두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KIA는 5월 첫 경기였던 2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메디나의 난조로 4-7 패는 기록했지만 3일에는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다시 승리를 만들었다.

5358일 만의 9연승 질주로 기세가 오를 대로 오

른 롯데. 특히 상대의 선발이 개막 후 5경기에서 1.34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을 수확한 나군안이었던 만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됐지만 KIA는 '투키' 윤영철을 내세워 롯데의 연승행진을 저지했다.

이우성의 솔로포 등 장단 12안타의 매서워진 타선의 힘을 보여줬던 만큼 4일 연속 쏟아진 비가 KIA에는 아쉬움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탈리아 프로축구 SSC 나폴리가 5일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열린 2022-2023 세리에A 33라운드 우디네세와 원정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했다. 김민재가 환호하는 팬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나폴리의 '철기둥' 김민재 한국인 최초 세리에A 우승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유럽 빅리그 데뷔 시즌을 우승으로 장식했다.

김민재가 속한 이탈리아 프로축구 SSC 나폴리는 5일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열린 2022-2023 세리에A 33라운드 우디네세와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승점 80을 기록한 나폴리는 2위 라치오(승점 64)와 격차를 16점으로 벌려 남은 5경기에서 다 지더라도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게 됐다.

2020년 세상을 떠난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가 될 때인 1990년 이후 33년 만에 리그 정상에 복귀한 나폴리는 1987년을 포함해 통산 세 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유럽 5대 빅 리그로 꼽히는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리그에서 우승한 것은 박지성, 정우영에 이어 김민재가 세 번째다.

박지성이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7년과 2008년, 2009년, 2011년에 우승했고, 독일 분데스리가 뮌헨 소속이던 정우영은 2019년에 리그 정상에 올랐다.

그간 유럽 5대 리그 가운데 유독 한국인 선수의 진출이 적었던 이탈리아에서 김민재는 한국 선수의 첫 우승이라는 기록을 썼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팀의 리그 33경기 가운데 32경기에 선발로 나오며 수비 중심 역할을 해냈다.

지난 시즌까지 팀의 센터백을 맡은 칼리두 쿨리발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로 떠나자 나폴리는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뛰던 김민재를 영입했다.

K리그 전복 현대, 중국 베이징 궈안에 이어 2021년 페네르바체로 이적하며 유럽에 진출한 김민재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빅 리그가 바로 세리에

A였다. 그러나 그는 시즌 초반부터 맹활약하며 빠르게 팀의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9월 김민재는 세리에A 이탈의 선수에 뽑혔다. 2019-2020시즌부터 시상하는 세리에A 이탈의 선수에 아시아 국적 선수가 선정된 것은 김민재가 최초였다.

김민재는 시즌 초반부터 리그의 대표적인 공격수들이던 치료 임모빌레(라치오), 올리비에 지루(AC 밀란) 등을 쫓으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김민재가 중심을 잡으면서 나폴리는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점(23골)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도 나폴리는 31골만 내줘 AC 밀란과 함께 리그 최소 실점 팀이기는 했지만 팀 성적이 3위에서 1위로 오르면서 김민재의 영입은 원래 기대했던 '롤리발리 대체자' 이상의 효과를 낸 셈이다.

김민재 개인의 몸값도 급상승했다. 축구선수의 시장 가치를 전문으로 다루는 트랜스퍼마크트는 김민재의 이적료를 5000만유로(약 731억원)로 책정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33년 만에 나폴리(이탈리아)의 세리에A 우승을 이끈 '철벽' 김민재 영입에 6천만 유로(약 878억원)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탈리아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시즌 초반이던 지난해 9월 2500만 유로에서 두 배가 오른 수치다. 터키에서 뛰던 2021년 10월에는 650만 유로였다.

이번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팀을 8강까지 올려놓으며 큰 무대에서 존재감을 알린 김민재가 다음 시즌에는 또 얼마나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된다.

/연합뉴스

광주FC, 대전과 0-0 무승부...4경기 연속 무승



광주FC의 무승이 4경기 연속 이어졌다. 아쉬운 무승부에도 광주주는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리그 1라운드 로빈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가 지난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11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골은 없었지만 1부리그에서 다시 만난 두 팀은 실 새 없는 공세로 경기장을 달구었다. 치열한 몸싸움이 전개되면서 5장의 경고 카드도 나왔다.

광주 수문장 김경민이 전반전 주인공이었다. 김경민이 전반 9분 오른쪽에서 나온 배준호의 슈팅을 막아내며 기싸움을 나눴다.

전반 12분에는 광주 이견희가 하승운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까지 들어가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대전 골키퍼 이장근에 막혔다. 세컨볼을 향해 이견희가 달려들었지만 상대 수비수의 발이 빨랐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문전 경합 과정에서 뒤에 있던 이강현에게 공이 연결됐다. 논스톱 슈팅이 나왔지만 공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전반 27분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졌다. 코너킥 상황에서 역습을 맞은 광주. 김경민이 전방관이 문전에서 때린 슈팅을 몸을 날려 막아냈다. 이어 흐른 공이 광주 골포스트 왼쪽에 있던 유강현에게 향했고, 김경민이 다시 한번 몸을 날려 대전의 득점을 저지했다.

전반 39분 경기장에 아쉬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승운의 슈팅이 골키퍼의 발에 막혔고, 흘러나온 공을 잡은 정우영의 오른발 슈팅도 골대를 맞은 뒤 바깥으로 벗어났다.

광주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카드를 사용해 분위기를 바꿨다.

이정호 감독이 주영재, 이견희, 하승운을 대신해 이희균, 허을, 엄지성을 투입했다

새로 투입된 엄지성이 김한길과 좋은 호흡으로 공을 살려 마지막 공격까지 전개했다. 허을의 헤더가 이어졌지만 득점에 실패한 광주.



광주FC의 허을(왼쪽)이 지난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임은수와 공을 두고 있다. <광주FC 제공>

후반 7분에는 광주의 역습 상황에서 엄지성이 김민덕의 태클에 쓰러지면서 경고 카드가 나왔다. 이 장면으로 비디오 판독까지 진행됐지만 퇴장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두 팀은 숨 돌릴 틈 없이 상대 진영을 오가면서 득점 사냥에 나섰다.

후반 11분 두현석이 길게 올린 공이 문전에 있던 허을에게 향했지만 한 걸음이 부족했다. 이어 엄지성이 왼쪽을 파고들어 허을에게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키퍼 맞고 공이 굴절됐다. 문전으로 달려든 허을이 공을 터치하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가 무산됐다. 후반 22분에도 엄지성의 크로스에 이어 허을의 헤더가 나왔지만 공이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37분 프리킥 상황이 무위에 그친 뒤 오른쪽에서 아사시가 왼발로 문전으로 공을 보냈지만 공은 광주 공격진을 지나치고 말았다.

이후 5분의 추가 시간에도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광주와 대전, '승격 동기'의 시즌 첫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났다.

곳은 날씨에도 경기장에는 3687명의 관중이 입장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줬다.

이정호 감독은 "계속 꾸준히 경기 잘하고 있는데 득점이 안 나온 것에 대해 선수들이 더 아쉬워할 것 같다. 골을 넣기 위해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 꾸준히 경기를 하다 보면 많은 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늦은 날씨지만 맑은 날도 있는 것이다. 아예 구름 위로 올라가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를 통해 광주는 1라운드 로빈 마지막 경기를 소화했다. 1년 만에 돌아온 1부 리그에서 모든 상대를 만난 광주의 성적은 4승 2무 5패(승점 14), 6위 수원FC와 승점 1점 차 7위.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주춤했지만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아쉬운 경기도 있었지만, 우리한테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경기를 발판 삼아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더 좋은 결과와 순위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골프, 일본에 2승...조 3위로 마감

한화 인터내셔널 크라운

고진영·김효주, 전인지·최혜진

한·일전 승리...4강 진출은 실패

조별리그에서 총 6차례 포볼 경기 중 2경기에서 이겨 2승으로 승점 2점을 기록, 태국(6점)과 호주(3.5점)에 이어 B조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일본은 0.5점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2014년 창설된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한국은 개최국인 2018년 직전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나 이번 대회에선 앞선 이를 동안 호주와 태국에 각각 2패를 당하며 이미 4강 진출이 좌절됐다. 이번 대회엔 한국과 미국, 일본, 스웨덴, 잉글랜드, 태국, 호주, 중국이 출전해 A, B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렀고, 상위 2개국 4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4강 진출과는 관련이 없어졌으나 자존심이 걸린 이날 한일전에서 고진영-김효주는 2번 홀(파3) 고진영의 버디로 앞서 나간 뒤 8~10번 홀을 연이어 때내며 한때 4홀 차까지 앞선 가운데 여유 있게 승리를 가져왔다.

최혜진-전인지는 한 홀 차 박빙의 우위를 이어가다 14번 홀(파4) 전인지의 버디로 승기를 잡은 뒤 17번 홀에서 경기를 끝냈다.

/연합뉴스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조별리그 2연패로 이미 탈락이 확정된 한국이 마지막 한일전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국은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TPC 하딩파크(파72)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조별리그 최종전 포볼(2인 1조의 한 팀이 각각의 공으로 경기에 더 좋은 성적을 팀 점수로 삼는 방식) 경기에서 일본에 2승을 거뒀다.

고진영-김효주가 유카 사소-시부노 히나코에게 두 홀을 남기고 세 홀 차로 앞서며 승리했고, 전인지-최혜진은 하타오가 나사-후루에 아이카에게 17번 홀까지 세 홀 차로 리드하며 경기를 따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 호주, 태국, 일본과의